

일반논문

‘여성’이란 무엇인가? 크리스테바(J. Kristeva)의 사상에서 ‘여성’이라는 주체성의 재구성*

박 주 원(영남대학교)

민주주의가 시민됨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을 통해 시민이라는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과 동력을 찾아가듯이, 페미니즘 정치가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로서 ‘여성성’이 무엇인가에 그것이 한 사회의 억압과 권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페미니즘 정치가 대표해야 할 ‘여성성’의 방향이 무엇인지의 문제를 답하기 위한 시도로서, 여성정치를 제기하는 방향에 있어 권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불평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보다 구별되고, 또 한편 포스트페미니즘의 방향과 같이 차이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여러 사회적 변수들의 하나로 페미니즘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과도 달리, 라캉과 프로이트, 헤겔에 대한 재해석 속에서 맑스주의의 방향에서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크리스테바를 통해 ‘여성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 사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근거를 성찰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테바에게서 주체성(subjectivity)으로서의 ‘여성성(Femininity)’이란 기성 질서가 생성한 상징계의 억압과 견열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기호적 코라(*sémiotique chora*)를 상기하고 회복하고자 함으로써 기존의 관념, 규범, 제도, 나아가 여성이라는 주체의 경계를 의식하고 되문고 다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계를 산출하는 끊임없는 실천의 주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그렇기에 그녀에게 여성이라는 육체의 물질성이자 모성의 핵심은 단순히 고정된 육체성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젠더 역할로 환원되어 없어지는 아닌 것으로, 자신의 경계 속에서 타인을 새롭게 산출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감각과 욕동의 재현과 감성적 실천의 장소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크리스테바, 페미니즘, 여성성, 자아, 주체성, 상호텍스트성, 재의미화과정, 세미오틱, 썬블릭, 아브젝트, 아브젝시옹, 욕동, 모성, 민주주의, 라캉, 헤겔, 프로이트, 버틀러

* 이 글은 2008년 4월 한국정치사상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조언을 주신 심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1. 주체의 문제, ‘여성’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시민됨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을 통해 시민이라는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과 동력을 찾아가듯이, 페미니즘 정치가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로서 ‘여성성’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한 사회의 억압과 권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여성’, ‘여성성’, ‘여성문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여성’으로 구성되는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왜 ‘여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정치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즉 이 글은 페미니즘 정치가 대표해야 할 ‘여성성’의 방향은 무엇인지의 문제를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여성정치를 제기하는 방향이 권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불평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보다 구별되고, 또 한편 포스트페미니즘의 방향과 같이 차이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여러 사회적 변수들의 하나로 페미니즘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과도 달리, 라캉과 프로이트, 헤겔의 재해석에 바탕한 마르크스주의의 방향에서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크리스테바를 통해 ‘여성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 사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근거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그리 자명한 것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호명이나 기호가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한 존재형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 모두를 포괄하는 지칭으로서 ‘인간’이라는 개념이나 호명 또한 그 의미는 역사의 흐름에서 상이한 개념과 내용으로 변천해왔는데, 이는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다움’의 속성이 그저 출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렇듯 언어가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이며 그리하여 특정 언어가 단

일한 의미로 단순히 치환될 수 없는 것이라면,¹⁾ ‘여성’이라는 호명이 어떠한 개념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될 수 없다.

또한 ‘여성’이라는 기호나 호명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그러한 호명이 지칭하고 있는 실재의 존재 또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다.²⁾ 자연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실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 해도 실재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란 무엇인지의 문제 또한 매우 상이한 의견으로 제출되었다. 가령 여성을 자연적 존재로 정의한다고 해도 그 때 여성을 표징하는 자연성이 무엇인지, 여성성의 생물학적 성질이 무엇이나를 둘러싸고도 여러 논쟁이 있어왔다. 예컨대 애초에 생물학적 여성의 실재성은 흔히 자궁이나 성기의 형태로 판별되었지만 곧 성염색체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고 확증될 수 있다는 견해 등으로 제출되다가 1970년 이후에 와서는 이러한 어떤 기준으로도 성(性 sex)의 실재성은 분명히 확증되거나 단언될 수 없다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여성의 문제를 자연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차원sex에서 정의할 수 없으며 사회적 차원(gender)에서 그 구성의 방식과 구성의 귀결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여성 문제를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구성되고 의미화되는 주체성 형성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성’이라는 호명이 구성되는 과정 안에 내포된 권력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둬으로써

-
- 1)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현대 기호학이나 구조주의적 언어학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깝게는 해석학의 흐름에서 제기되었던 하이데거, 베티, 가다머 간에 보편적이면서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해석’의 과정을 둘러싼 논쟁을 상기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실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재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19세기말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Heidegger 1962; Gadamer 1978; 팔머 2001)
 - 2) 말과 사물, 혹은 호명과 그에 대응하는 실재와의 관련에 대한 의문과 검토야말로 20세기 이후 해석학과 언어학, 구조주의에서 제기된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이 발생하게 된 출발이자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주원 2009, 30-31) 참조.

페미니즘 정치의 또 다른 한 방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자아가 어떻게 특정한 이름으로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게 되는지 혹은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겔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인간 ‘자아(self)’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주체성(subjectivity)’의 문제로 질문한다는 점에서 헤겔과 구분된다.

이후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지만, 이는 데카르트 이래 명명되어 온 ‘자아’의 개념 안에 내포된 의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성에 대한 반론을 의미한다. ‘주체성’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자기를 형성하는 모든 현상들을 완벽하게 지각하지 못하며 심지어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이라 이름 붙여진 차원이 존재한다는 프로이트(S. Freud)의 논지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자율적인 에고’라는 관념이 허구적으로 조직된 환상일 뿐³⁾이라는 라캉(J. Lacan)의 논의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헤겔의 주체 개념과 달리 크리스테바에게서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여성/남성’ 혹은 ‘모성/부성’이라는 계기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그녀에게 자아의 형성과정은 출생의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는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의식과 욕망, 반항과 억압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주체의 문제를 여성/남성, 모성/부성이라는 상징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과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녀의 사상은 페미니즘으로만 한정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여성’의 문제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녀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개인적 경험에서 제기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험적 실천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와 자신의 작

3) “자율적 에고(autonomous ego)는 허구적으로 조직된 가장 이질적인 기능들의 총체이다. 이것이 고유성에 대한 주체의 느낌을 지탱하게 한다(Lacan 1977, 230-1)”

업을 구분한다.⁴⁾ 그녀에게서 인간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징 질서에 진입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면한 아버지/아머니 혹은 여성/남성의 상징과 그 상징 질서가 주는 권력으로부터 내면적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인간 ‘자아(self)’의 정체성 형성이나 주체(subject)의 구성, 즉 주체성(subjectivity)의 문제가 왜 여성 문제와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인간의 문제로서 ‘주체’의 문제가 인간 일반의 차원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지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의 물음이 그것이다. 결국 인간 일반의 문제로서 해소될 수 없는 ‘여성 이슈’ 혹은 ‘여성주의’의 철학적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에서 ‘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지에 대한 물음이 이 글이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이었다.

2. ‘여성’ 개념의 역사적 변화와 민주주의

‘여성’ 혹은 ‘여성주의’라는 개념을 여성운동의 역사와 이론 속에서 돌아보았을 때, 먼저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중반에 출현한 근대적인 것으로서,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4) 이러한 맥락에서 크리스테바는 텍스트의 실천을 여성들 개개인으로부터 이끌어 내고 그들의 여성주의적 글쓰기에 주목하고 있는 뤼스 이리가레이(L. Irigaray)와 구별되며, 또 다른 한편 여성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 특히 탈식민주의 여성의 억압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극복을 억압된 여성들의 실천에서 찾고 있는 가야트리 스피박(G. Spivak)이나 호미 바바(H. Bhabha)의 노력과도 구분된다. 스피박은 이들을 ‘하위주체(subaltern)’로 개념화하면서 단순히 이들을 재현하거나 묘사하는 대신 이들을 억압과 예측상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녀는 이들에게 ‘말을 걸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호미 바바는 식민지인의 ‘흉내내기(mimicry)’가 저항과 전복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파악하고, ‘구별짓기’가 아닌 ‘따라하기’의 전략을 택한다. (Irigaray 1985; Spivak 1990; Bhabha 1994)

있지만⁵⁾ 1871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한 의학서적에서 남성 환자들의 성 기관과 성징 발달상의 정지를 묘사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지적된다.⁶⁾ 여기에서 이 남성 환자들은 몸이 ‘여성화’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 용어는 이후 프랑스의 작가이자 공화론자이며 반페미니스트인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Alexandre Dumas fils)에 의해 채택된다. 뒤마는 1872년에 간통을 주제로 다룬 팸플릿『남성-여성』(l'homme-femme)에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여성들을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Freedman 2002, 18-19) 이러한 용례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남녀의 자연적 형태가 변형되는데 대한 공포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의학 용어로는 ‘남성의 여성화’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정치적 용어로는 ‘여성의 남성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지적된다.(Frassi 1995, 316)⁷⁾ 즉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는 1882년 프랑스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구자이며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위베르틴 오클레르(Hubertine Auclert)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헌에 등장하였으며, 오클레르는 1876년

5) 푸리에(C. Fourier)를 연구한 변기찬에 따르면, 폴 로베르(Paul Robert)가 편집한 사전을 보면 푸리에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1837년 처음 사용하였다고 적고 있고, 그 용어가 1830년을 전후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지만, 실제 푸리에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다만 가족과 결혼제도로부터의 여성의 자유로운 성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페미니즘적 사상이 제출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변기찬 2003, 159, 161, 164)

6) feminism이라는 용어가 ‘여성적인’을 뜻하는 feminine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 그 용어는 남성의 몸이 여성적으로 되는 증상이나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쓰여졌다.

7) 남성의 여성화와 여성의 남성화의 두 용례에서 나타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출현한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공통된 의미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의 것이던 간에 그리고 무엇이 둘 사이의 동등한 상태인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던 간에, 여성과 남성의 ‘동일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권리협화’를 설립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선거권 획득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다.(변기찬 2003, 167-8) ‘남성의 여성화’와 달리 ‘여성의 남성화’라는 의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의 채택 이후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보다 정치적인 주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젠더(gender)’라는 용어는 사회적 의미로서는 1970년대 초반에 성적 차별화 구조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⁸⁾ 남성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경험이 역사 일반의 내용에서 가려졌을 뿐 아니라, 남성의 경험 그 자체도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⁹⁾ 즉, 성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정형태의 사회적 왜곡이 수반된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남성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으며, 성의 문제가 성 역할과 관련되어 만들어지는 사회적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바로 그 시점부터 신체적이고 형태학적이며 해부학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성(sex)’과, 문화적으로 구조화되고 역사적으로 변하며 종종 불안정하기까지 한 차이를 의미하는 ‘젠더(gender)’가 개념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8) ‘젠더(gender)’라는 용어는 1950년대 로버트 스톨러 등 정신의학자에 의해 등장했지만 사회적 맥락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게일루빈이나 앤오클리 등에 의해서이다. 위스너-헝크스(M. E. Wiesner-Hanks)의 연구는 성과 젠더가 개념적으로 분화되는 이론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Wiesner-Hanks 2001, 15-29)

9) 예를 들어 직업을 묘사할 때, ‘화가’, ‘여류화가’ 또는 ‘과학자’, ‘여성과학자’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과학자 쿨리 부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이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반면, 뉴턴이 남성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Wiesner-Hanks 2001, 14)

그런 까닭에 ‘젠더’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 연구는 물론 여성에도 변함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계기가 남성과 여성의 행동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 모두가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의 범주로서 ‘젠더’의 유용성이 인정된 그 시점부터 sex와 gender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여성의 특정 성향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산물이며 사회적 결과물인가와 같은 질문이 그것이다. 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개념으로 여성을 파악하는 젠더의 개념은 확산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경우 ‘젠더’라는 단어를 기피하고 ‘여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경향이 전개되기도 했다. ‘여성’이라는 개념은 분명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젠더 분석보다는 더욱 정치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과 ‘젠더’ 개념은 그 경계가 덜 뚜렷해진 듯이 보인다. 젠더 분석은 여성사를 대체했다기 보다는 여성사에서 나온 것으로 점차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feminism, woman, gender라는 개념의 발생과 의미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로 여성운동과 여성이론의 전개는 근대의 역사적 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의 이론적 흐름은 크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래 제기된 ‘동일화’의 이론과 1968년 이후 제기되는 ‘차이’의 이론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된다.¹⁰⁾ 크리스테바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시간』에서 20세기 여성운동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크

10) 프리드먼(J. Freedman)은 여성운동과 이론의 전개를 ‘평등’에 주목했던 흐름과 ‘차이’에 주목하는 흐름으로 구분한다. 남성과 같아지기 위해 평등한 권리를 주장했던 시기와 남성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차이가 허용될 수 있는 권리의 획득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획득에 주목해왔으며, 후자는 주로 도덕성, 어머니 노릇, 보살핌의 윤리를 주목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이론의 흐름이 페미니즘에 내재하는 영원한 문제로서 ‘평등’과 ‘차이’의 계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파악한다. (Freedman 2002, 29-53)

계 세 단계로 분석¹¹⁾하였는데, 위의 일반적인 파악과 마찬가지로 여성 운동의 첫 단계를 근대 이후 1968년까지로 보면서, 그 시기의 운동이 평등주의적 요구, 다시 말해 동일한 임금과 동일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들로 특징지어 진다고 논의한다.(Kristeva 1986, 194; 맥아피 2007, 178)

특히 이러한 흐름에 위치하는 이론은 근래에 와서 ‘동물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제안된다. 동물의 민주주의란 1.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대표권을 가진다. 2. 여성들만이 적절하게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다. 3. 여성들의 출현이 전체 정치기구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으로 주장되는데, 젠더 동물을 위한 할당제 등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¹²⁾ 그러나 크리스테바는 이와 관련하여 평등에 대한 요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운동의 귀결이 현존하는 권력구조를 보다 더 확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그 평등의 방향이 남성과의 동일시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구현되는 방향은 남성적 질서, 상징 질서, 현존하는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질서를 용인하거나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과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영(I. Young)과 페이트만(C. Pateman)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페이트만에 따르면, 평

11) 크리스테바는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 형성되는 전개과정과 20세기 여성운동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들의 시간(1979)』에서 사회질서(상징질서)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여자아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석하며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20세기 여성운동의 세 가지 역사적 발달과정과 연결시킨다.(Kristeva 1986, 192-210). 이러한 태도는 한 인간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주체의 형성과정이 한 사회나 시대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12) 앤 필립(A. Phillips)은 ‘동물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물론 남성들이 대표권을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지만, 젠더 동물은 현재의 성별 노동 분업에 의존한 것이며, 더욱이 보편적 시민권에 내포된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대표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주목하는 ‘존재의 정치(politics of presence)’에서 그 대표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주목하는 ‘이념의 정치(politics of idea)’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hillips 1998)

등에 주목하는 운동이나 이론은 여성의 문제를 ‘공적’ 영역의 차원에서 제기함으로써 ‘사적’ 영역에 내재해 있는 보다 폭넓은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차원의 운동은 공적 영역의 가치 확대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 사적 영역의 가치를 배제시킴으로써, 여성의 억압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Pateman 1992) 그러한 점에서 보편적 시민권은 여성을 사적 영역에 유폐시킨 채 진행되는 정치적 허구로 비판된다.¹³⁾ 영(I. Young)도 같은 맥락에서 보편적 시민권이 오히려 또 다른 여성배제와 억압의 기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Young 1998)

크리스테바는 1968년 이후 여성운동의 두 번째 단계를 모성적 양태가 강조되는 시기로 설명한다. 1970년대 전개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평등을 요구하는 대신 여성이 가진 차이를 강조했던 것이다.¹⁴⁾ 그들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성을 상정할 뿐 아니라, 모성적인 것을 ‘조화롭고 자유로우며 충족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여성의 고유한 속성을 사회비판의 토대로 파악했다. 70년대 프랑스와 미국의 여성운동에서 ‘급진주의적 분리주의’의 형태가 강력히 대두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 관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여성에게 고유한 차이에 주목하는 이러한 방향은 한편으로는 급진적 ‘분리주의’

13) 이미 1970년대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페이트만(C. Pateman)은 가족과 개인적인 삶을 ‘정치’ 외부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도전했다. 그녀는 1988년의 책에서 사적인 영역이 사실상 권력관계와 젠더화 된 불평등의 일차적 저장소라고 비판하면서, 단순히 공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를 변경시키는데 주목한다. 즉, 그녀는 개인의 상황이 공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조화되는 방식에 주목하는데, 예를 들어 주부의 법적 지위, 양육에 대한 정부정책, 복지수당, 노동법, 성별분업, 강간이나 성희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Pateman 1987, 1988)

14)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태도가 상징적 질서와의 관계를 회피하려는 태도와 그래서 상상적 세계로 돌아가려는 태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로 표현되거나, 다른 한편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독특한 속성을 ‘여성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하는 일정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가정, 즉 한편으로 현실의 질서를 권력의 질서, 아버지의 질서와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 타협되지 않은 질서를 평화의 질서, 어머니의 질서와 동일시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러한 가정은 ‘여성주의’를 직접적으로 실재하는 주체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주체 혹은 고정된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¹⁵⁾ 그 결과 여성주의의 속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여성적인 것들’ 간에 벌어지는 관계를 사상한 채 여성적 시간의 차별성은 사라지고 오직 ‘동일하지 않다’는 말로만 표현될 수 있을 뿐이기에, ‘여성적인 것’이 반드시 ‘평화주의적인 것’¹⁶⁾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여성을 둘러싼 개념과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이론과 운동들이 가진 문제점이나 불충분성을 극복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전제나 개념 자체에 대해 다시금 근본적으로 질문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평등’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균등’이나 ‘동일시’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지, ‘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것인지, ‘여성’이기에 자연적으로 가진 고유한 속성이 있는지, 혹은 ‘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 탐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테바는 헤겔

15) 이러한 맥락에서 크리스테바는 이리가레이(L. Irigaray) 등이 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성을 고유한 성질로 상정하고 그 범주를 영속화하는 본질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타자로서의 주체나 주체안의 타자성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이다.(Kristeva 1986, 195-203)

16) ‘평화’라는 것 또한 언어적 과정을 통해 의미화되는 어떤 것이라 했을 때, 무엇이 ‘평화’인지에 대해 합의되거나 진지하게 질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주의’가 ‘평화’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 논지로 돌아가, 자신을 구성하는 ‘여성성’이라는 주체성(subjectivity)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 개념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여성운동과 이론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요청되었던 것이다.

3. 과정 중의 주체(subjectivity), ‘말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성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초기의 주요 저술인 『시적 언어의 혁명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1974)』책 머리에 다음과 같은 헤겔의 문구를 헌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가 개념에 대해 분투하는 것이다.” 오늘날 헤겔에 대한 환기는 크리스테바 뿐 아니라 슬라보예 지젝(S. Zizek), 알랭 바디우(A. Badiou), 주디스 버틀러(J. Butler) 등에게서 주체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다.

헤겔에 대한 단절과 반복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철학의 역사에서 종결 될 수 없었던 질문들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헤겔 자신이 비판적으로 종합하고자 했던 고대 희랍철학에 내포되어 있는 자연학과 철학의, 혹은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혹은 존재와 생성이라는 두 계기의 끊임없는 관련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¹⁷⁾ 만일 우리의 현실에서 ‘헤겔의 지연된 도래’라고 불러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출발은 그러한 지연을 초래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어려운 것은 ‘헤겔적 전통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통을 여하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에서 헤겔을 다시 읽는 방향은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되

17)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K. Marx)는 헤겔의 텍스트를 고대 그리스에 내포된 자연학과 형이상학,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종합하고자 했던 사상적 노력의 일환으로 간파하고 있다.(Marx 1975, 35-6)

지 않는다.¹⁸⁾ 예컨대 버틀러, 크리스테바 모두 헤겔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각각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것은 -헤겔과 관련하여- ‘헤겔’을 닫힌 체계가 아니라 의식의 발전을 통한 주체의 형성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현재 2005, 81).¹⁹⁾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이 그러한 ‘과정’을 움직이는 힘인지, 그러한 과정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디스 버틀러(J. Butler)와 줄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크리스테바는 여성이 하나의 주체로 의미화되는 과정에서 상징계에 개입할 수 있는 ‘시적 언어’를 만들어낼 욕동의 근거, 다시 말해 모성적인 것의 공간과 에너지를 발견해 낸다. 반면, 버틀러에게 의미화의 끊임없는 과정에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행위만이 존재할 뿐 그 ‘행위 뒤에 주체’는 없다.²⁰⁾ 크리스테바에게 상징계에 개입하고 교란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시적 언어’로 찾아지지만, 버틀러에게 의미화하고/의미화된 모든 언어는 ‘인용quotation’일 뿐이다. 그리하여 여성/남성이라는 주체의 존재론적 범주 또한 하나의 상징일 뿐 그 상징

18) 페미니즘에서의 헤겔 재해석과 관련해서는 퍼트리셔 밀즈(Patricia Mills)와 킴벌리 헷칭스(Kimberly Hutchings), 앨리슨 스톤(Alison Stone)의 연구를 참조. 1949년 시몬느 보바르(S. Beauvior)가 [제2의 성]에서 여성을 타자로서의 여성, 즉 부정성으로 ‘남성이 아닌’ 타자화의 과정에 예측된 구성된 의식으로 바라본 이래 버틀러(J. Butler)와 벤하비브(S. Benhabib), 크리스테바(J. Kristeva), 이리가레이(L. Irigaray) 등이 헤겔의 『정신현상학』과 『안티고네』, 『법철학』을 재해석하여 여성이라는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을 이론화하고 있다.(스톤 2007) 1장, 2장, 5장 참조.

19) 헤겔을 차용하여 크리스테바는 실천이 다음과 같이 변증법적 3단계를 겪으며 상승한다고 이야기한다. 1) 즉자적 단계: 경험은 실천이 아니다. -원자적 실천, 2) 대자적 단계: 실천 속에서 단절을 소화하기 - 실천적 경험, 3) 즉자 대자적 단계: 실천으로서의 텍스트(텍스트는 실천이다), 변증법의 제2전복이 그것이다.(크리스테바 2000, 4장 실천) 참조.

20) 버틀러(J. Butler)에게 모든 정체성 범주들은 우연적이다. 따라서 버틀러에게 ‘수행성 performativity’이란 반복 속의 ‘재의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방적이고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것을 뜻한다. (Butler 1990; 1993)

에 대응하는 주체는 급진적으로 거부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비판은 정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비판의 초점을 단순화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는 그녀가 새로운 여성성 혹은 여성적인 것으로 ‘모성’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여성이라는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팔루스적인 결핍이나 욕구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근거나 영역을 인정하게 된다고 비판된다.(Phillips 1998) 반면 버틀러에 대한 비판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주체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급진적으로 밀고간 결과, 페미니즘의 물질적 토대는 사라져 버렸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Benhabib 2008)²¹⁾

이렇듯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비판은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테바에게는 그녀의 ‘모성’ 개념이 여성의 자연적 토대를 다시금 상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하면서, 버틀러에게는 ‘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들만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행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자연적 토대를 없애버리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을 지칭하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자연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어느 한 쪽으로 해소될 수 없는 어려운 것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또한 헤겔에 대한 재해석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대상화하고 대상화된 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계기들이 가지는 관련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크리스테바가 ‘여성성’이라는 주체의 문제를 텍스트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해가는 것으로 제시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으로서 ‘모성’의

21) 나아가 벤하비브(S. Benhabib)는 버틀러가 ‘수행성(performativity)’에 기초한 또 다른 젠더 존재론을 이론화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있다.(벤하비브 2008)

개념이 기존의 가부장적 모성 담론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여성의 육체성과 실재성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본질론에 포획되지 않고 정의될 수 있을지의 물음이 그것이다.

크리сте바에게 여성이란 처음부터 괄호안의 ‘여성’이며 그래서 ‘여성적인 것’ 혹은 ‘여성상’다. ‘여성’이라는 표상이 확실한 실재에 대응하거나 단순히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일하고 명확한 주체로서 여성이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근대적 존재론과 자아개념에 대한 비판이자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성’이라는 표상은 그렇게 확실한 실재에 대응하거나 단순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불안정하고 동요하는 어떠한 ‘상태’ 속에 놓이게 된다.²²⁾

또한 그녀에게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언어’나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게 되는 ‘말’을 통해 표현된다. 즉, 여성은 여성이라 불리우는 것과 그것이 지칭하는 실재하는 것 사이에서 언어를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해 내고 나의 그러한 행위가 또 다른 의미를 만드는 ‘의미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그녀에게 ‘여성’이란 반드시 ‘말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그 결과 단일하고 일관된 자아(self)가 사라지고 주체성(subjectivity)은 언제나 복수형태로 존재하며, 비결정적이고 심지어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글쓰기는 이해의 주체가 아니라 분열된 주체 또는 복수화 된 주체에 의해 유지된다. 분열되고 복수화 된 주체는 치

22)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R. Descartes)의 언명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 행동, 의지를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일관된 내적 의식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주권자일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미가 그렇게 확실하고 자명한 의식을 통해 파악될 수 없는 것일 때, 더욱이 그러한 의식 또한 의식을 억압하고 있는 다른 많은 ‘의식이 아닌 것들’과 함께 혼재되어 작용하고 할 때, 즉 언어학과 프로이트에 의해 단일하고 일관된 내적의식을 소유한 데카르트적 주체로서 자아(self)의 개념은 도전되었다.(라이트 2002; 박찬부 2001)

환가능하며 복합적이고 심지어는 유동적이기까지 한 장소들을 차지하고 있다(Kristeva 1980, 111).” 크리스테바에게 여성에 대한 물음은 ‘자아가 아니라 ‘주체’로 나타나며, 여성이 아니라 ‘여성’, ‘여성성’, ‘주체성(subjectivity)’로 나타난다. 크리스테바가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수많은 텍스트들 혹은 목소리들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다.²³⁾

이 때, 주체가 의미를 산출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기호계(le sémiotique;세미오틱)와 상징계(le symbolique;생볼릭)라는 두 양태 간의 상호 개입과정으로 파악된다(박주원 2009, 33, 38)²⁴⁾ 그녀에게 상징계란 단순히 의미화과정의 귀결이자 산물로 자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혼란중인, 여전히 생성 중에 있는, 끊임없이 구성 중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또한 ‘상상계’가 허구였음을 거울단계를 통해 깨닫고 상징계로 진입해가는 라캉의 설명과 달리, 그녀에게 상징계로 진입하기 이전의 ‘기호계’는 단순히 허구나 환상, 혹은 이데올로기의 공간이 아니다.(박주원 2009, 40)

그녀는 이를 기호적 코라chora라고 명명하는데, 플라톤이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코라를 아직 하나의 정돈된 우주로 통일되지 않은,

23) “텍스트는 정치혁명에 실천에 비할 수 있을 하나의 실천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실천은 정치혁명의 실천이 사회 내에 도입하는 것을 주체 내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역사와 정치경험이 주체의 변화에는 사회가, 사회의 변화에는 주체가 결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의 전복 이래로, 그리고 더욱 프로이트의 혁명 이래로 거기에 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었던가?- 우리가 문학 실천에 대해 제기할 질문들은 문학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평을 겨냥하게 할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이질적인 과정을 의미생성(signifiance)이라고 부를 것이다.(Kristeva 2000, 16)”

24) 이 두 양태는 언어를 구성하는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주체는 항상 세미오틱인 동시에 생볼릭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산출해 내는 의미체계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전적으로’ 세미오틱일 수도 없고, 또 ‘전적으로’ 생볼릭일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의미체계는 서로 쌍방 간에 진 빛의 표적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분을 공급하는 모성적인 것으로 언급했듯이(Kristeva 2000, 27), 사라지지 않고 남아 상징계에 개입하게 만드는 기호계의 원천적 에너지 상태를 뜻한다. 아직 질서를 가지지 않은 코라를 하나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욕동(pulsion)²⁵⁾으로(Kristeva 2000, 26), 코라와 욕동이 산출해내는 '부정성(negativite)'은 기호계와 상징계를 고착화되고 자립화된 두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4. 아브젝시옹(abjection) 혹은 경계에 선 주체

크리스테바에게 텍스트의 의미화의 과정이란 환원될 수 없는 상징계와 기호계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주체'는 생성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크리스테바의 논의는 라캉과 달리²⁷⁾, 상징계 또한 변화한다는 것, 따라서 의미의 생성과정 그리하여 주체의 구성과정은 전복의 가능성을 가진 열린 구조임을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크리스테바에게 주체란 '과정 중의 주체'이자 그것을 고착화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즉 과정 중에 놓여있도록 끊임없이 상징질서에 개입하는 '반항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5) 욕동(pulsion)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Trieb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로서, 충동(impulsion)과는 구별된다.

26) 그러므로 크리스테바에게 “의미 생성이란 한계가 없고 결코 닫히지 않은 생성과정”이며, 그것은 “언어를 향하여, 언어 안에서, 그리고 언어를 가로지르는 욕동을 향하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욕동의 끊임없는 기능작용(Kristeva 2000, 17)”인 것이다.

27) 라캉의 논의에서처럼 상징계에 진입하는 순간 상상계를 잃어버리고 만다면, 현존하는 상징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차단되고, 이러한 상상계-상징계-실체계는 일련의 시간적인 발전단계로 고착화되거나 혹은 상징계의 구조 안에 갇히게 되고 만다는 비판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점에서 라캉은 그가 출발했던 소쉬르의 지점, 즉 결국 언어는 과정이자 꼭 짜여져 있다고 보는 그 ‘닫힌 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그녀는 어느 한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기호계와 상징계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계에 위치하는 에너지를 욕동, 코라로 명명하고 이러한 에너지의 언어적 표현형식을 ‘시적 언어’의 행위로 도출했지만, 코라나 욕동이란 아직 어떠한 전복적인 힘으로서 상징계에 진입하기에는 일정한 모양과 질서를 갖지 못한, 무정형의 어떤 에너지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에너지로 하여금 변화와 전복의 행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일까?

크리스테바에게서 주체란 아브제시옹(abjection)을 아브젝트(object)함으로써 그 경계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질서로 파악된다. 자아의 형성이나 주체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아닌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자아’의 내용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배제하는 문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것’을 비천한 것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거꾸로 아브젝트 한 것을 다시 대상화하고 다시 고려함으로써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공포의 권력』에서 억압되어지고 경계에서 제외된 ‘아브젝트(object)’는 결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주체를 위협하면서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남아 체제와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전복적인 요소로 남아있다고 역설한다.(Kristeva 2001, 39-42) 상질질서가 요구하는 주체와 대상간의 명확한 경계는 아브제시옹에 의해서 경계가 흐려지고 모호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브젝트는 상징계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 질서와 무질서, 청결한 것과 불결한 것의 명확한 구분과 구별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²⁸⁾

28) 아브젝트(object)는 애매모호하고, 안과 밖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분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우유의 표면에 생성된 막, 삶을 감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이질적인 타자성의 수용이야말로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반항으로 나타난다. 만일 정체성의 형성에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녀에게 그것은 경계에 놓여있는 존재,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못하는, 바로 환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로소 자신을 대상화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곧 끊임없는 배제와 경계를 통해 자아를 확정하고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문제는 타자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경계를 확장, 혹은 전복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의 형성이 인간 일반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여성’의 문제로 등장해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것, 즉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와 배척 - 그녀에게 아브젝시옹-을 통해, 그 관계 속에서만이 형성되어진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²⁹⁾ 그리하여 크리스테바에게 자아의 정체성, 주체로의 형성은 반드시 타자에 대한 상호성, 인정, 혹은 갈등 속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실천’이 된다.

그녀는 정신분석적 설명과정을 통해 경계를 만들어내는 비판적 주체의 토대를 발견하고 ‘부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녀는 프로이트와 달리, 그러한 억압과 충동의 상호작용이 비롯되는 공간을, 그리하여 전복의 힘이 마련되는 계기를, 아버지와 관련된 과정이 주목되는 외이디프스적 욕망과 무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오이디프스적 욕망과 심리, 무의식에

염시키는 죽음을 의미하는 시체, 찢은 고기, 법을 위반하는 범죄 등이 아브젝트의 좋은 예이다.(박주영 2004, 209).

29) 그러한 의미에서 신명아는 크리스테바가 강조하는 주체란, 타자와의 구별로 인해 얻어지는 단일적 주체성을 고집하고 그 허구적 위상을 보유하기 위해 계속 타자를 차별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을 뜻한다.(신명아 1998, 250)

기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모성이라는 육체와 그것이 주는 심리적 내용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자아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과 관계를 정의해가고 있다.(박주영 2004, 206) 그렇다면 크리스테바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련에 주목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프로이트 사상에서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은 그가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세(castration)’에 관련한 부분이었다. 만일 이렇듯, 거세 환상에 사로잡혀 금지된 욕망을 억압하고 아버지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남자아이의 외디프스 콤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외상이 자신이 이미 ‘거세되어’ 있다는 데에서 생겨난다면, 결코 어떠한 사회적 과정, 의미화과정을 거처서도 ‘거세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자는 그로부터 갖게 되는 열등감과 수동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 동안 페미니즘이 프로이트를 비판해왔던 근거이기도 하다.³⁰⁾ ‘거세되어 있다는’, 즉 남근이 결핍되어 있다는 상태가 반드시 심리적인 결핍이나 결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파악한다면, 성 정체성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충동이 아니라는 그 자신의 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만일 그의 말처럼, 거세에 대한 결핍 감정이 반드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남근’으로 표현되는 권위 혹은 질서에 대한 결핍을 뜻하

³⁰⁾ 예를 들어,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케이트 밀렛(Kate Milllett)은 프로이트가 남성지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여성을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보수적인 성이론을 확대시켰다고 비판한다. 반면, 줄리엣 미첼(J. Mitchell)은 프로이트의 논의에 반감을 보이거나 적대시했던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정신분석학이 가장장 사회를 옹호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그것을 분석하는 시도이며,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억압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정신분석학을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Mitchell 1974, 19)

는 것이라면, 거세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욕구/동일시/억압은 페니스의 유무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환상, 심리, 의식, 욕망의 재현들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³¹⁾

5. 새로운 여성성, ‘모성’이라는 육체의 물질성에 대하여

크리스테바에게 ‘모성’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가 프로이드를 도입했던 의미는 성의 문제가, 성에 대한 욕망과 의식, 그리고 이에 대한 억압과 표출의 문제가 ‘언어의 의미화’ 과정에, ‘주체’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는 데 있다. 생물학적 자연성이 아니라 물질적 감각적 토대에 대해 주목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모성(motherhood)’이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자와의 관계를 뜻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모성의 개념은 ‘생물학적’이라기 보다는 ‘물질적’이며 ‘감각적’인 토대에 관한 것이다.(모리스 1997) 모성이라는 육체성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화 관련을 말하며, 이는 그녀가 육체의 문제, 욕구의 문제, 감성의 문제를 언어가 의미화되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³²⁾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유물론자이다. 육체 자체가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물질적 기반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명확해 지는 것은 한편으로 생물학적인 압력이 사회적으로 통제·조정·배치되어서 사회 장치들과 관련된 과잉을 생산한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욕동(pulsion)의 기능 작용이 하나의 실천, 다시 말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저항·유한성·정체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다(Kristeva 2000, 17).”

32) 테리 로벨은 육체란 실재적이며 실제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언제나 ‘구성된 육체’라고 논의한다. 육체가 실재적이라고 할 때 육체가 가지는 ‘물질’이 반드시 객관적인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 물질성의 다양한 양상들은 과연 무엇인지 제기하고, 폭력과 배제 없이 어떻게 물질적 육체에 대한 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탐구해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크리스테바는 여성/모성의 계기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녀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판들처럼, 모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생물학적 범주로 회귀하게 된 것인가, 만일 그것이 단지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라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녀는 프로이트가 제기했듯이 인간 내면의 무의식 저변에는 자신을 형성시킨 가족의 물질적 토대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자신의 성적 태생에 관련한 sexuality에 깊이 긴박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로부터 상징질서를 배워가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충동과 불안 혹은 그것의 억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어머니 됨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재생산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모성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틈과 갈라짐을 강조하려는데 그녀가 어머니와의 관계에 주목하는,³³⁾ 혹은 그래서 ‘모성’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녀에게 모성은 철저한 역설과, 이중성, 다원성, 동일성과 차이의 상태를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라는 것은 살 그 자체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가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다.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심연이 몸과, 몸속에 있었던 것 사이를 열어 놓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 내 자신 사이에, 또는 좀 더 소박하게 말해, 내 몸과 그 속에 있는 이 접가지의 주름 사이는 어떻게 이어져 있기에 일단 뗏줄을 끊고 나면 다가갈 수 없는 남이 되는 걸까?.....저 심연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어지러운 현기증. 아무것도 알아 볼 수 없다. (Kristeva, 『눈물흘리는 성모』)”

33) 성 정체성을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연관시켜 설명했던 논자는 낸시 초도로우(N. Chodorow), 델라니 클레인이 있다.(Chodorow 1994, 1997; Klein 1978)

어머니의 몸을 통해 그녀가 말하려는 ‘경계’의 물질적 내용이 이어진다. 처음에 하나였다가 경계에서 무엇인가를 배타적인 것으로 밀어내는 아브젝시옹의 행위는, 자아의 형성이 필연적으로 자기가 아닌 것, 즉 타자적인 것, 이질적인 것을 밀어내고 배제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테바는 어머니와 관련된 것을 비천한 것으로 밀어내면서도 그것과 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인간의 본원적인 마음을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표현한다. 자기가 아닌 것을 이질적인 것으로 아브젝트하는 과정은 그토록 고통스럽거나 그리운 과정이다.

어쩌면 그녀가 어머니와의 관련을 말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바로 이렇듯 원래 어머니의 몸의 일부였던 것이 떨어져 나와 다가갈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 되는 그런 과정에 빚대어 인간이 스스로 하나의 ‘주체’가 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그 ‘경계’ 자체가 스스로의 토대이다. 즉 자아의 형성이란 필연적으로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경계 짓는 행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헤겔의 핵심을 ‘부정성’으로 읽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몸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듯이, 어머니의 몸, 혹은 자궁, 혹은 기호적 코라는 이질적이고 이항적인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새로운 여성성으로서의 ‘모성’의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영원한 이항관계, ‘경계’ 그 자체가, 그리하여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부정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러한 점이 주체의 형성 문제가 여성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 언어의 상호간의 과정이란 그 안에 이질적이고 갈등적이기까지 한 두 계기를 영원히 포함한 그 경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의식하면서 남성/여성의 관련 속에서만, 그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것을 배타하고 수용

하는 그 과정 속에서만 비로소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크리스테바에게서 ‘여성성’은 기성의 상징계의 억압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기호적 코라를 상기하고 회복하고자 함으로써 기존의 관념, 규범, 제도, 나아가 여성이라는 주체의 경계를 의식하고 되묻고 다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계를 산출하는 끊임없는 실천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이라는 육체의 물질성이자 모성의 핵심은 자신의 경계 속에서 타인을 새롭게 산출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감각과 욕동의 재현과 실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³⁴⁾

그렇다면 크리스테바에게서 모성이란 어떤 특정한 물리적 신체나 고정된 실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육체성 안에서 기호적 실천을 통해 기성의 언어와 관념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언어와 관념을 창출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재현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여성이라는 육체의 물질성이자 모성의 핵심은 단순히 고정된 육체성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젠더 역할로 환원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서, 자신의 경계 속에서 타인을 새롭게 산출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감각과 욕동의 재현과 감각적 실천의 장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³⁴⁾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크리스테바에게 있어 언어의 실천성이란 언어가 의미를 재현하고 생성하는 상징의 질서이자 권력이라는 점을 단순히 확정하는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의 의미화과정 내부에 상징질서로 인한 억압뿐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충동, 반항의 심리와 신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제한한데 있다고 보았었다. 그녀는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상징의 정치와 의식 ‘언저리’에 결코 그에 순치되지 못하는 인간의 욕동이, 에너지가, 충동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고 봄으로써 기성의 언어구조와 상징질서를 넘어서 수 있는 혁명적 실천의 근거를 찾고 있다. 바로 그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언어가 하나의 의미로 구성되고 또 다른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며 그 속에서 전복의 정치를 구성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에게 언어의 과정은 ‘주체가 신체, 언어, 사회가 관련되어 있는’ 유물론적인 것이 된다. (박주원 2009, 43-5)

시민이 무엇이며 시민됨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지 또 그러한 시민적 삶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묻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 길이라면, 페미니즘이 정치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성’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 권리를 촉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무엇이 ‘여성성’을 구성하는 것인지 그 경계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크리스테바는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여성성’ 혹은 ‘모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과정이란 단순히 자신의 육체성을 대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의 관념과 경계에 반항하고 현재 자신이 아브젝트한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재의미화’의 실천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육체성을 감성적 실천행위로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그 사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된다. 그녀에게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고 여성 이슈를 제기해가는 것은 기존의 문화적 권력과 질서의 경계를 새로이 만들어가는 정치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5일 접수, 5월 4일 심사완료, 5월 9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진, 가라타니. 김재희(역). 2004. 『은유로서의 건축: 언어, 수, 화폐』 서울: 한나래.
- 김상환, 홍준기. 2002. 『라캉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영민. 2006. “하이데거/라캉”,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집 2호.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김인환. 1995.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담론 연구 - 관조적 담론과 텍스트 실천적 담론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30(1).
- 라이트, 엘리자베스. 이소희(역). 2002. 『라캉과 포스트페미니즘』 이제이북스.
- 린트호프, 레나. 이란표(역). 1998. 『페미니즘 문학이론』 인간사랑.
- 맥아피, 노엘. 이부순(역). 2007.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울: 엘피.
- 모리스, 팸. 강희원(역). 1997. 『문학과 페미니즘』 서울: 문예출판사.
- 박종성. 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
- 박주영. 2004.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모성적 육체.” 『비평과이론』9(1).
- 박주원. 2009. “언어와 정치-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사상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19(2).
- 박찬부. 2001. “라캉 담론의 현대적 유산.” 『라캉과 현대정신분석』3(1).
- 벤하비브, 세일라. 2008. 『타자의 권리 -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 현실사.
- 변기찬. 2003.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 용어의 기원.” 『중앙사론』18.
- 브룩스, 앤. 2003.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 살리, 사라. 김정경(역). 2007.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엘피.
- 스톤, 앨리슨. 윤소영(역). 2007. 『헤겔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서울: 공감.
- 신명아.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과 여성이론이 페미니즘에 미친 영향.” 『코리아안 이마고』2.
- 엘리엇, 앤서니. 김정훈(역). 2007. 『자아란 무엇인가』 삼인.
- 이만우. 2006. “라캉 정신분석과 마르크스주의”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집 2호.

- 이성민. 2007.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슬라보예 지젝. 옮긴이 후기, 도서출판 b.
- 이현재. 2005.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 헤겔 변증법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시대와 철학』
- 이현재. 2007. 『여성의 정체성-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책세상.
- 팔머, 리차드. 이한우(역). 2001.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임옥희. 2006. 『주디스 버틀러 읽기: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여이연.
- 프로이트, 지그문트. 2007. 오현숙(역). 『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 을유문화사.
- 허다트, 데이비드. 2011.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앨피.
- Bhabha, Homi.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 Butler, Judith.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3. “The Body Politics of Julia Kristeva”, in *Ethics, Politics and Difference in Julia Kristeva's Writing*. Oliver Kelly (ed.) New York: Routledge. pp. 164-79.
- _____. 1990.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 Chodorow, Nancy. 1994. *Femininities, masculinities, Sexualities*,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Frassi, G. 1995. *Muse de la Raison: Démocratie et exclusion des femmes en France*. Paris: Gallimard.
- Freedman, Jane. 2001. *Feminism*. 이박혜경 옮김. 2002. 『페미니즘』 서울: 이후출판사.
- Hegel, G. W. F. 1947. *Penomenology of Mind*, (trans.) T. Knox, Oxford: The Clarendon Press.
- Heidegger, Martin, 1962. *Being and Time*, Macquarrie and Robinson(trans), London: SCM Press.
- Irigaray, Luce, 1985. *The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 Gillian C. Gill)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 Kristeva, Julia. 1986. Toril Moi(ed.). The Kristeva Reader. Columbia Univ. Press.
- _____. 1986. "Women's Time(1979)". The Kristeva Reader. Columbia Univ. Press.
- _____. 1980. Leon S. Roudiez(ed.)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1977). Oxford: Blackwell.
- _____. 김인환(역). 2000. 『시적 언어의 혁명(1974)』 서울: 동문선.
- _____. 서민원(역). 2005. 『세미오티케(1969)』 서울: 동문선.
- _____. 임미경(역). 2002. 『여성과 성스러움(1980)』 서울: 문학동네.
- _____. 서민원(역). 2001. 『공포의 권력(1980)』 동문선
- _____. 유복렬(역). 1998.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정신분석의 힘과 한계 (1996)』 푸른숲.
- Lacan, Jacques. 1977. "The agency of the letter in the unconscious or reason since Freud"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 _____. 1989. Speech and Language in Psychoanalysis, trans, Anthony
- Marx, Karl. 1975. "Difference between the Democritean and Epicurean Philosophy of Nature",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 1.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itchell, Juliet. 1974. Psychoanalysis and Feminism. Harmondsworth: penguin
- Mouffe, Chantal. 1995.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tic Politics(1993)" 『미셸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서울: 새물결.
- Pateman, Carole. 1992. "Equality, Difference, Subordination: the Politics of Motherhood and Women's Citizenship" in Gisela Bock and Susan James (eds.), Beyond Equality and Differe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_____. 1988. The Sexual Contract.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87. "Feminist critique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in Anne Phillips (ed.) Feminism and Equality, Oxford: Blackwill.
- Phillips, Ann. 1998.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or, Why Should it Matter Who our Representatives Are?", in Anne Phillips (ed.) Feminism and Politics, Oxford Univ. Press.

- _____. (ed.) 1998. *Feminism and Politics*. Oxford Univ. Press.
- _____. 1987. (ed.) *Feminism and Equality*, Oxford: Blackwill.
- Slavoj Zizek, 1993. *Tarrying with the Negative*. 이성민 역. 2007.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 도서출판 b.
- Spivak, Gayatri. 1990. *The Post colonial Critic: Interview, Strategies, Dialogues*. Routledge.
- Wiesner-Hanks, Merry E. 2001. *Gender in History*. Oxford: Blackwell.
- Young, I. M. 1998.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in Ann Phillips (ed) *Feminism and Politics*, Oxford Univ. Press.

What is the 'woman'? Reconstruction of the Subjectivity as 'Femininity' in Julia Kristeva's Political thought

Park, Joo-Won

As democracy is looking for conditions and motives of forming subject, citizen, through the questioning what is being citizen, to connect politics of feminism with democracy should set the reference how 'Femininity' as subject rises question of criticizing oppression and power of the society. This article, as a trial of setting the direction of politics of gender which represents 'Femininity', unlike focusing on 'right' of the being, different from approach of inequality and justice, post-feminism approach critically focusing on difference, and seeing the feminism as a set of social variables, tries to focus on Kristeva's view which rises question of gender based on Marxism through reinterpreting Hegel, Lacan and Freud and how Kristeva's view can be related with criticizing social power.

In this article, 'Femininity' as subjectivity in Kristeva's view is considered endless subject of practice producing new parameter over existing one as recovering and memorizing *sémiotique chora* which never eliminated in spite of oppression and census produced by existing order through re-questioning and be conscious of existing norm, concept, institute, and parameter of subject as being feminine. Furthermore, she tries to interpret essence of maternity and materiality of body as feminine, not fixed materiality of body nor reduced to role of specific role of gender, rather in self parameter place of representing senses and pulsion and sensitive practice in which it reproduce others and simultaneously form a new identity.

Keyword : J. Kristeva, feminism, femininity, self, subjectivity, intertextuality, le sémiotique, le symbolique, abject, abjection, pulsion, maternity, democracy, G. W. F. Hegel, J. Lacan, S. Freud, J. Butler